

新訂尋常小學

三

朝

25

2



新訂尋常小學卷二目錄

第一課 萬壽聖節이
朝鮮總督府保轉本

第二課 비호기를勸喜이라

第三課 堪保已一의話라

第四課 소경이라

第五課 警察이라

第六課 虎와狐의話라

第七課 華盛頓의話라



卷二 目錄

第八課

心の秤이라

第九課

孝鼠의 이야기라

第十課

英祖朝에 오서褥을
還給하신 이야기라

第十一課

李時白이 싹을 밟

치지 아니할 이

의 기라

第十二課

宿癩의 話라

第十三課 鳥됨을願하는問答

第十四課 菊花라 하는問答

第十五課 紀元節이라 하는問答

第十六課 鶯이라 하는問答

第十七課 雀이鶯의巢를奪하는問答

第十八課 書冊을讀하는法

第十九課 讀書의 法

第二十課 讀書의 法

이라

第十九課

繪와圖라

第二十課

日本居畱地의地

圖라

第二十一課

山과河라

第二十二課

蜜蜂이라

第二十三課

狡猾ᄃ馬라

第二十四課

地球의回轉이라

第二十五課

四節이라

第二十六課

一年의 月日이

라

第二十七課

人의 一生이라

第二十八課

정성이 다

第二十九課

獸의 王이라

第三十課

養生이라

第三十一課

順明의 鳩라

第三十二課

船이라

第三十三課

武器라

第三十四課

軍士라

第二十六課

一卒이라

第二十五課

四官이라

新訂尋常小學卷三

第一課

萬壽聖節

九月八日是

萬壽聖節이라. 今

上大君主陛下계옵서

誕生하옵신 날이니國民들이業을休하고
慶을賀하며門前에國旗를 달고恭謹히此
日을奉祝하노이다. 今

土

上大君主陛下계음서

建陽元年前四十四

年壬子開國四百六

十一年에

誕生하시, 建陽元年

前三十二年甲子開

國四百七十二年에

登極하시니, 그 때



春秋 十三이시오

太祖大王부터 繼統이二十八代이시오이다.

第二課

비호기를 勸함이라.

杏花며 桃花는

발서 써리지고.

三夏 九秋는

어느 結을에 다 갖는고.

白雪이 霏霏하야

今年이 벌서 歲暮로다

오는 날을 밋고

게 어르게 말아

歲月은 스름을

기다리지 아니하니

於焉間에

少壯하던니가 老大하여야진다

不學하면 無識하니

世上 스름의게

譏弄을 받들

그셔에는

後悔하야 슬피하야도 効驗이 업나니라

暫時스 이라도

虛送하지 말고

各般才藝를 學習하며 古今歷代를 達通하야

着實히 工夫하면

追後에는 必然

有識할스름으로 . . . 될터이라
到底히工夫할라 . . . 우리들

第三課 塙保已一의事蹟이

塙保已一은日本國에 일흠난博學者라
七歲에盲者나되야十五歲부터彈琴法과
導引法을비오다가버리고恆常讀書함을

조와 할야. 他人을 식이여. 書義를 講解할야.

문득 暗誦할터니. 맛춤

니. 有名할 先生을. 請하

야. 着實이. 工夫할야. 日

本의 書籍을. 아니라. 我

國과. 支那等國의. 글

서. 涉獵아. 아니. 할. 거. 시

업. 더. 라.



成工。然後에 學堂을 開設하니 弟子ㅣ 甚
多할지라. 夜로 밤에는 弟子를 모와 某書를
釋義할진. 바름이 불어 燈火를 滅하야 冊을
볼수업는지라. 弟子ㅣ 暫時기 다리불 請하
키날 保已ㅣ 이갈오디. 燈火가 업서 보지 못
할과 然면 이는 참은 이 밝은 스텸이 도리여
自由치 못할거시. 로다 하고. 우섯더라.
保已ㅣ 의 編輯을 羣書類從이란 冊은 正續

兩帙을 합하여三千七十種이요其冊數는
二千八百五十卷이라 그몸은盲者 하나 그
런巨秩의冊을編輯할 거슨實는感歎할 만
할일이아나오릿가

第四課

소경이라

世上에 소경이잇슴은

兒孩들도 다알사보오

그러나 두눈의 밝은

소경도 世上에 잇나이다

文字란 거슨 우리들로 할야 몸 古事를

눈으로 말디 힘아 알게 할거시나

文字를 읽지 못 할者는 엇지 할터이요

必然 조음도 分間치 못 할것시나

이런 스름을 俗談에

눈은 소경이라고 일은 다 할오

두눈이 잇스면서.

보지 못글는 소경이 되지 말고.

힘쓸 것시라. 우티 들은. 暫時도 게어르게.

마시 읍시다.

第五課

警察이라

무릇警察은市街이며田野이며山林이며. 或水上이며. 그管轄되는데를. 巡視하야. 火

災며 水難이며 盜難이며 其他各樣으로 人
民의 災難을 豫防하 기도 하며 或 救援하 기
도 하 는 이 다

그 職分을 當하 는 스름은 總巡과 巡檢이 라
이런 스름은 恆常嚴하 規則을 遵守하 야 人
民의 災難을 防備하 며 救濟하 기에 則 身命
을 顧치 아 나 하 는 者 이 니 故로 人民되 는 者
는 이 스름을 恆常敬愛하 기 시 오 이 다

第六課

虎와狐의話라

古時에 言범이 여호할아를 生擒할야 먹고
주할더니 그 여호니 갈오되 나논 짐승의 王
이 되야 하늘에서 내려왔스니 萬一나를 犯
할면 直地에 罰을 입을이라

범이 그 말을 듣고 半信半疑할거늘 여호니
또 갈오되 네 뒤를 좃가와보아라 山中의

百獸 | 다. 나. 의. 威. 風. 을
 怯. 네. 야. 逃. 亡. 할. 리. 라. 할
 티
 범. 이. 여. 호. 의. 眞. 僞. 를. 試
 驗. 요. 자. 하. 야. 其. 後. 를. 從
 行. 하. 야. 本. 卒. 果. 然. 모. 든
 짐. 성. 이. 다. 恐. 懼. 하. 야. 逃
 亡. 할. 거. 늘. 범. 이. 自. 己. 를.



怯하야。逃亡할 줄은 알지 못하고。眞實노여
호의威嚴이。壯하다하더라。
然故로。主人의勢力이며。親知의威權을。빛
고。微弱할 사름을。凌虐하느。者를。俗言에。일
으되。狐假虎威라하느이다。

第七課 華盛頓의話라

華盛頓(名은 제이지)은。百餘年前에美國스

름이니眞實노智勇이兼
 備할英雄이라汝等은後
 日에必然히英雄의來歷
 을알년니와卽수그스름
 의이이기할아를하리라
 華盛頰이어릴씨에저의
 父親이할小斧를주거늘
 저가甚喜하야그小斧의利鈍을試驗코자



하야 마당에 나아가 여리 나무를 버혀 볼 식
저의父親이 가장愛惜하야 培養하는 櫻木
을 버혀 너 멋 더 리고 그 일이 惡할 줄은 알 지
못 하 더 라

저의 父親이 櫻木의 너머진 것을 보고 心
中에 不悅하야 華盛頓을 불러 너를 오디. 누
가 나의 사랑하난 櫻木을 버히는 나 못 거 늘
華盛頓이 그제야 그 잘 못함을 알고 恭
敬

對答하라. 갈오되 나는 父親을 속이지 못하
오. 나는 이는 眞實노. 小子가 버헐습는이다.
할되 저의 父親이 大喜하라. 華盛頓의 머리
를 어루만저曰. 참 奇特하다. 나는 實노. 너의
欺罔아니함을 사랑하라. 責지아니하리라.
할얏다 하니라. 汝等은 다 이 이인기를 잇지 말나. 萬一 모로
고 惡事를 할얏슬 자라도 이 華盛頓갓치. 그

것을 감추지 아니 할야。저의 誤錯함을 謝罪
할 것시니라。萬一 그리 아니 할고。그 일을 감
추는 썩는 惡事를 거듭진는 거시니라。

第八課 心の秤이라

할慾心만흔。兒孩잇서。恆常貴物을 맛노면。
저흔조가지고조할며。有味할。飲食을 보면。
저흔조먹고조할노이다。點을 손에 지니면。

그러하더니。제가 一夜에 夢을 見드니。하
벗과 갓치 큰 川邊으로 行할 時。하스름이 籠
들에 水朴을 담아 역리에 매이고。오다가 이
두아히 터러 曰。이 水朴을 너의 게 주리라。하
거늘。慾心만 흔 兒孩。뚝 兩手를 쳐 나만 다
쥬으 小서 하니。하
그스름이 忽번 웃고 갈오 티 올타。그러나 그
냥은 쥬지 아니 하 깃스니。爲先。이 籠 속에 드

리가 보라 하고 二兒을 다 잡아 兩邊籠속에
너하니 奇異하다. 이 두籠은 籠이 아니오 곳
큰저을 바탕이라. 그 스름이 그 바탕을 물에
向하야 半뼘기우리고 일너 曰. 이러케 되야
도 너 혼주 이 水朴을 다 바들터 이 나 못거늘
慾心잇는 兒孩 그제야 生覺하되 이 水朴을
저 혼자 바드면 必然할편이 무거워 물에 서
리 질 줄 알고 갈오 뒤 저 兒孩와 갓치 平均하

分給할 소서하고 萬端哀乞하다 가 문득 심을
을 썩 낫나이다

此後로는 이 兒孩 改過해야 物件을 보면 自
然 心中에 그 됨을 生覺해야 아모 일이라도
公平치 아닐 썩 업스니 이런 故로 남이 稱賞
치 아니 할 이 업다 하노이다

第九課 孝鼠의 이의기라

順姬란女子一冊床압
 히서 혼조冊을 볼식 조
 고 마할 소리 들나 거늘
 눈을 드리 보나 歷 밋히
 저 근 구멍에서 할 쥐식
 기가 머리롤 너 밧고 스
 름의 動靜을 보느 지라
 順姬一 쥐식기의 動靜



을 보고 주야 氣運을 낫추고 喘息을 가만
이 하고 잇섯더니 쥐식기 이리저리 보면서
房의 셔러진 米粒을 보고 忽然히 다시 슈머
가거늘 順姬 생각하되 쥐식기 何故로 다시 나오
지 아니하느냐고 疑心하얏더니 이윽고 그 식
기 저의 어머니를 房中으로 引導하야 오고 그
뒤에는 또 鼠食기 샤라 나오더니

그 큰 쥐는 구멍껏 히 잇서 나오지 아니 하고
두 식기 만 房中으로 도라다 이 면서 米粒을
집어서 저는 먹지 아니 하고 큰 쥐 압흐로 輸
運하야 가 터니

큰 쥐 卽時 먹지 못 하고 다만 입으로 米粒을
차지 면서 어릿어릿 하는 지라 仔細히 보니
可憐하다 이 큰 쥐는 盲者 이오 두 식기가 食
物을 어적 奉養하는 거시라 且 體를 大히

順姬。一。싱각늘되。저것슨。짐성이로되。오히
려。그母를。極히奉養할다。늘고。딕우。感動하
야。더욱。고요히。안저。놀네지。아니。늘얏더니。
窓外에。忽然人跡이。잇는지라。두석기。듯고。
大驚하야。할소리。크게。질으니。이느。제어
미의。게。들녀。急히。逃亡。하게。함이라。
그。씨。큰。취。듯고。곳。구멍。으로。드러。갓。느이다。
嗚呼。하라。짐성이。라도。其親을。奉養。과。保護

英祖朝 卷二 十三
하기에用心하시기를이갓치하시니. 할말며. 스
름되는者. 一. 孝心이업스즉엇지하시리오.

第十課 英祖朝 기음서 褥를

還給하시니. 이의가라

英祖朝 기음서. 一日은. 戶曹判書를. 入侍식
이사. 下敎曰. 朕이年老하시야. 筋骨이衰弱
하시야. 坐臥. 一. 甚히不便하시자. 卿은. 朕을爲



하야寢褥할아를지어드리라하시거늘戶
判이命을밧자와卽時靑木으로숨을만이
두어두렵게하야드렸더니

後數日에다시戶判을命召하야그褥를還
給하사曰朕이이褥를어든後로寢睡
오便安하나그러나數日以來로漸漸懈惰
하야일즉자고늦게이러나니百姓의疾苦
를도라볼餘暇업스나朕이엇지一身의

便함을 取하야 萬民을 생각지 아니 할리오
또 國中에 나와 갓치 年老할者 飢寒이 甚
多 할리니 卿은 朕의 뜻을 생각하야 錢米를
分給 할라 하고 또 諸臣을 도라 보와 糶
스되 卿等은 各其職業을 직히여 朕으로 할
야 朝宗과 萬民의 게得罪치 아니 할게
라 할시 약습 나이다

第十一課

李時白이 ㅅㅅ을 ㅅㅅ

치지 아니 할 노 이

의 기 라

李相時白家에 牧丹이 盛開할 ㅅㅅ더니

孝宗大王이 中官을 보너사 求할 신디 時白

이 正色할 야 ㅅㅅ오 디 너 비록 不肖할 나 三公

이 되야 ㅅㅅ지 耳目의 玩好로 ㅅㅅ人君을 ㅅㅅ기

리 오 ㅅㅅ고 ㅅㅅ庭下에 너려 牧丹을 ㅅㅅ거 너리

고.北向再拜
 하야.曰.臣이
 正道로써事
 君치못하와
 今日에
 陛下로하야
 吾臣을向하
 야.狎邪를일을行하
 라하시게하오니若此



孝宗
 卷三十一

一八

言堂小學 卷三
十一
不已하면 賄賂將行하야 國家의 危亡이 장
차 朝夕에 잇슬지라 臣의 罪一 萬死無惜이
오이다. 하거늘.

上이 드르시고 大端히 後悔하사 自後로 敬
禮 더욱 隆重하시고 政治를 힘쓰섯노이다.

第十二課 宿癩의 話라

支那昔時에 齊나라에 嬴님을 사느 ㅎ女子

나잇스니 이女子는 목에 큰 혹이잇는지라.
그런故로 스름이 宿瘤라 일흠을지엇더라.
一日은 宿瘤ㅣ뽕납을싸더니 冥國君의
舉動이되는지라 許多한 士女ㅣ다 그구경
할을爲하야 奔走하되 宿瘤ㅣ흠노도라보
지아니하고 뽕납만싸가늘 齊王이보고 疑
訝하야 宿瘤를붙으사 그緣故를물으시니
宿瘤ㅣ對하야 고우되 父母의게 뽕납을싸라

는 말을 듣고 大王의 舉動을 구경하라 는 말
은 뜻지 못하와 敢히 仰瞻치 못하얏노이다
하거늘 王이 크게 感動하야 곧 오되 너는 眞
實노 奇女子로다 그러나 목에 흑이 잇스
니 瘡갓갑다 하되 宿癩로 對하야 곧 오되
스름은 口음이 第一이오 나 흑이 잇습기로
무수 關係잇스오 릿가 하되 王이 그 賢明함
을 歎賞하시고 宮中에 잇구려 드리치니

宮中의 女官들이 宿癩 一 入闕 訶을 뜻고 다
服飾을 盛히 하고 기다리더니 宿癩 一 入闕
訶의 非但 衣服이 麤 訶 訶 訶 訶 訶 訶
이 잇슴을 보고 다 웃논지라 王이 그 無禮 訶
을 譴責하고 곧 宿癩를 封하야 王妃를 삼고
自後로 王妃의 諫言을 容納하야 宮中의 冗
費를 減省하야 百姓의 惠澤을 너리니 나
라이 날노 富強하야 威力이 隣國을 壓服하

엇노이다

第十三課

鳥되를願호는問

答이라

教師曰。女生徒서희를모와뜻코左列호

일을質問호얏노이다

教師曰。蘭姬야萬一네가식될진터어니식

되기를바라나노



스리우입나이다

교·師·曰·竹·姬·야·너·는·어·니·식·되·기·를·바·라·는
 요

蘭·姬·對·曰·나·는·쇠
 고·리·되·기·를·願·하
 입·나·이·다·쇠·고·리
 는·恆·常·아·름·다·온
 소·리·로·滋·味·잇·게

竹姬對曰。나는 鴛鴦으로 되
기를 願하옵는다。鴛鴦은
깃도 고을 썬 더러 恆常 즐기
며 물우희서 노옵는다。



教師曰。貞姬야 너는 어니 식 되기를 바라노
요。
貞姬曰。나는 가마귀 되기를 願하옵는다。
가마귀는 보기는 좃치아나 하나 孝心이 大



端。할。식。라。할。은。나。이。다。
 教。師。는。三。女。의。對。答。을。聞
 ㅎ。고。그。貞。姬。의。對。答。이。가
 장。도。흔。줄。노。미。우。稱。贊。하
 고。또。訓。戒。하。되。무。릇。스。름
 은。姿。貌。의。고。흔。것。보。다。心
 術。의。아。름。다。은。저。시。第。一。이。라。하。고。仔。細。히
 辨。별。하。였。다。는。이。는。이。다。

第十四課 菊花라

菊花는 百花 一이다. 凋枯할 後에 흔저 아름다
온 矣을 희고 그 香氣도 甚히 可愛하
이다.

菊花에는 큰 瓣과 작은 瓣 두 樣이며 또 그 빛
도 白과 黃과 紅과 淡紅 等의 各色이 잇스며
그 種類가 大端히 多하니 이런 種類는 大概

養을 기를 때 라서 變을
 는 거시오 식 種類는 만
 히 種子를 심어서 되
 이다
 菊花는 培養에 가장 用
 力하는 거시나 萬一 그
 用力이 不足하는 처는
 畝판이 五寸 될 만 할 苗



浮常卜學 卷二

二二二

도. 不. 過. 二. 寸. 外. 에. 는. 아. 니. 되. 는. 일. 도. 있. 는. 이
다.
世. 上. 에. 는. 조. 고. 마. 할. 쏘. 된. 거. 슬. 보. 고. 비. 로. 소.
自. 家. 의. 用. 力. 이. 不. 足. 함. 을. 後. 悔. 하. 는. 스. 름. 도
있. 는. 이. 다.

우. 리. 도. 兒. 時. 에. 培. 養. 이. 足. 지. 못. 할. 則. 成. 長. 하
야. 必. 필. 썩. 에. 後. 悔. 하. 는. 것. 도. 있. 는. 이. 다.
우. 리. 들. 을. 培. 養. 하. 시. 는. 父. 母. 와. 教. 師. 시

요 그 敎育 함은 우리 國을 爲 함이야 거름 함시 는
거시오이다

우리가 弟妹 하고 分別 함이야 비로소 學校로
드러가느거든 밋치 叢生 함는 菊苗 를 芟 져
花壇으로 移植 함과 다름이 업스니 그러함
즉 우리가 學校로 入 赴 함이야 아니함고 敎育
을 受 치 아니함거든 菊苗 一 芟 짐이 되지아
니함고 거름을 受 치 아니함것과 갓트리다

그런菊花는 엇던꽃을
 피는터이요. 우리는 前
 에 籬陰에 生하고. 그 터
 로 꽃을 핀 거슬. 보왓 것
 니와. 그 培養을 受치 못
 할 거 實노 可憐할 貌
 樣이 오이다.



第十五課 紀元節이라

紀元節이라 거스르

太祖大王이 비로소 御位에 오르신 날이라

當初에

大王이 高麗朝에仕하사 門下侍中이 되얏

더시니 時에 그國政이 紊亂하야 衆望이 다

上에게歸하더라 일즉이 將帥가 되사 外

寇를防하며 內亂을戡定하사 大勳을 세

와 제시더니 못 참네 裴克廉 등의 推戴함을
被하사 大位에 卽하사 億萬年宗社의 業을
創하시고 統을 垂하시니 그 날은 八月二十
四日이니 此日을 紀元節이라 定하며 每年
奉祝하시느 格式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이 良日을 當하면 其 恩
澤의 汲흔 즐을 싱각하고 더욱 愛國忠君하
는 마음을 힘써 거시오이다

第十課

第十六課

鶯이라

鶯이란 식는 大小가 雀과 갓트니 등은 거르고
 비는 희며 가슴은 赭石色이라
 翅와 尾는 長하고 꼬리 깃이 둘노 分하며 飛
 흠이 甚速하며 任意로 능히 翻身하느이다
 또 嘴는 短하나 김히 비여 저서 나라다 날스
 이에 小虫을 啗아 먹느이다

鳥書小集

二二四

나하고. 還來하노이다.



鶯은. 春에와서. 집
을짓고. 秋가되면.
南方暖地로. 가나.
그러나. 每年古巢
를. 이저바리지아

第十七課

雀이鶯의巢를奪

鶯은 人家簷下에 作巢하니 其巢는 진흙을
 가지고 風壁처럼 工巧히 外面을 塗楷하고
 其中에는 毛羽等을 녀어 뜻뜻하게 隠드니
 이다. 一日은 날 狡猾한 雀이 鶯의 不在함을 보고
 그 집에 드러가 제알을 낫고 자하거늘 鶯이
 그 집을 일코 마우 놀나와 雀을 向하야 還給

하기를懇請하되。雀은 제집이라 하고。도리
 여驅逐하야 습는이다。
 鷺이 엇지혈길업서。許多하 벗을招集하야。
 진흙으로 그巢口를塗塞하니。雀이나 올수
 업서。그속에서 혼자擾亂이 구나。事勢如此
 하야。困境을當하얏는이다。
 凡事가 스스로勞苦치아니하고。남의物件
 을奪取하고。저하則아식처럼。養生하얏는

이다.

第十八課

書冊을讀하는法

이라

書冊은決斷코速히讀하고조말거시오.聲
음을淸楚케해야.천천히讀함이올소이다.
書冊을速히讀하는거시.能할줄노너기는
者.잇스나.이는大不可하니.萬若過速히

讀하는 법은 반듯사. 誤錯이. 만을 저시오 이
다.

또 書冊을 讀하되. 書字의 音節만 操心하고.

書意를 料量치아

나 할면 此亦大不

可 할오이다.

文字란 거슨 本來

그 生覺을 表하는



거시오書冊이란거슨 그文字의 뜻을 알고
즈흠이니. 그런故로文字는 그 뜻을 잇지 말
고生覺할거시오이다.

萬一許多할書籍을 읽을지라도 그事蹟을
不知하면 一毫라도 받들어업노이다.

是故로書冊 읽는法은 그辭義를 저도十分
알녀니와 그것테듯는者도 그 뜻을 아도록
읽는거시 잘읽는다.稱함은노이다.

第十九課 繪와圖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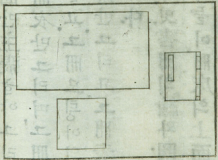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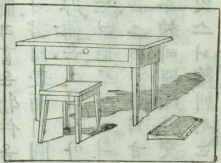
繪와圖는 엇더할異同이 잇슬가 그異同을
알미甚히緊要할일이오이다

繪라함은 아모物件이든지 一目에 보이는바
를다 그리는거시니 譬컨디 書冊을繪할면
그冊의冊衣와 척의모퉁이와 其他各色貌
樣들도다 그리는이다

圖라 함은 物件을 一面만 主張하라. 그리나
 나. 書冊 表面의 圖는 冊衣만 그리며 그 冊의
 厚薄은 그리지 아니하고 그 冊모퉁이의 圖
 는 그 冊모퉁이의 厚薄만 그리고 그 冊表面
 은 그리지 아니하는 이다.
 今 茲에 冊床과 交椅와 및 書冊의 繪와 圖가
 잇스니 繪에서는 우리들이 冊床의 上面과
 側面과 다리와 및 舌盒等이며 交椅의 上部

尋常小學 卷二十一 二二

와 다리 등이며 書冊의 衣紙와 척모팅이 등



이다. 뵈이나 圖에는 다만 冊床과 交椅와 및
書冊의 上面을 뵈일 뿐이오이다.
그러면 圖는 繪보다 所用이 적을 뜻하나 우
리는 그 冊床과 交椅와 書冊의 形狀이며 大小
와 및 그 세 物件이 相距할야 잇는 間格을 알
기 쉽사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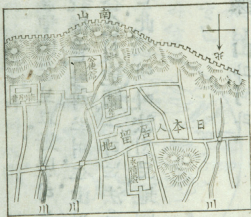
第二十課 日本居畱地の地

圖라

好慶이란. 兒孩가. 그同生. 好聞을불너. 日本
 居留地에. 가노던. 이야기를. 하고. 그居留地
 와. 公使館. 領事館의. 位置를. 말하얏더니. 好
 聞은. 어린. 兒孩라. 十分. 아라듯. 지. 못하느. 지
 라.

好慶이. 이에. 居留地. 地圖를. 그려. 낫. 낫. 치. 일
 너. 주니. 好聞이. 그. 제. 야. 恍然. 大覺. 하. 야. 그. 그

림을 가지고 밭모
 歡喜하야 地圖 그
 리는 法을 摹仿하
 더나 其後는 景致
 잇는 곳을 當할면
 할장을 그려가지
 고와서 제兄의게
 이야기하얏는이



다

우리들도 또 前掲의 地圖를 보고 好慶이 노
든 日本 居雷地의 貌樣을 아라쓰며 또 山이
며 谿流며 道路等 各色의 地圖 그리는 法을
비왓스니 우리들은 此後에 이 法티로 地圖
를 그려보읍시다

第二十一課

山과 河라

山이라 하는 것은 산이
 높고 草木이 繁茂하는
 데를 일으며 河이라 하
 는 것은 산이 낮고 물이
 흐르는 데를 일으며 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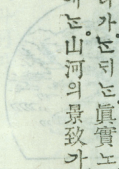
山에는 飛禽과 走獸
 잇고 河에는 魚族과 珠貝
 나며 산에서



石과材木을너며河에서비와젧목을浮케
하고또물을잇쓰러田畝에灌溉할너이다
河는大概산스이에出할야못참너바다로
흘너가논것시외다

山에縈回할야河가흘너가논터는眞實노
景致가조흔고로我國에는山河의景致가
만반오이다

山河의眞實한경치를보



第二十二課 蜜蜂이라

蜜蜂은 才蟲이라 그 蜜을 求하러 나갈 때에
제 집에서 五六里가 되는데라도 能히 가서
또 도라오는 길을 잊지 아니며 萬一 길에서
風雨를 만나면 花葉間을 依托하야 畱宿하
고 비가 霔친 후에 卽時 제 집으로 도라오나
이다.

蜜蜂은 蜜을 採集하러 또 蠟을 採하

게 제 房을 營作 할야 그 속에 蜜을 貯蓄 할야
이다

할 달 뿡이 가 蜜蜂의 房中

을 向하고 匍匐 할야 드러

오거늘 벌들이 놀나 도로

쫓치되 달 뿡이 는 背殼이

잇서 蜂刺 息을 怯네 지아

니하고 偃然 不動 할거늘



모든벌이 一計를니야 달팽이의難을避하
얏나이다

諸蜂이 同力하야 꿀을 가져 달팽이를 널판
에 단단히 붓쳐 두었더니 달팽이가 일신을
조금도 運動치 못하야 食物도 得지 못하
고 드디여 그곳에서 죽었다하느이다

第二十三課 狡猾馬라

淳言小學 卷三十一 三十一

三才小學 卷二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흐사름이 塲에서 말게 鹽을 싣고 還家 흐시
 川 流를 건너다가 말이 밧그러져 너머지니
 그 소음이 自然 水 沉
 하야 푸러졌는지라
 말은 그 짐이 업서 저
 몸이 가 비여 우물 歡
 喜 하야 도라왔소 이
 다



다른 날 다시 鹽을 싣고 場에 갔더니 그 말
이 前事를 想覺하고 川流를 當하여야 부러. 물
속에 너머져. 또 소음을 버렸사오이다.

말의 主人이 이거슬 보고 말의 行實을 懲戒
하고 자하야 次日은 許多할 草鞋와 밧 空石
等を 만히 싣나고. 또 場에 갔습나이다.

말은 그 料量 업서 川流를 當하야. 또 너머지
나. 馬背의 草鞋와 空石 등이 水沉되야. 더욱

무거워. 運動할 수 업는 지라. 主人이. 더욱. 미
위 할야. 鞭策으로. 몹시. 썩 리여. 겨우. 回家 할
니. 汗流滿身 할야. 大段히. 苦狀 할야. 스럽니. 이
다.

第二十四課 地球의 回轉이

地球는. 靜할야. 조금도. 動치. 아니. 할는. 듯할

뒤 우리가 大船을 타고 海上에 서가되 自己의 몸은 가지 아니 하는 줄 노아는 것과 같소이다.

수에 此地球의 圖를 보시오. 球의 半面은 太陽을 향하여 밝으며. 其餘半面은 太陽을 등지는 故로 어두운지라. 그 밝은 편은 日晝이고 어두운 편은 日夜이오이다.

地球는 위이 지아나하고 回轉하여 太陽을

向하는 데는 晝이 되고 太陽을 背하는 데는
夜이 되옵는 이다.

이처럼 晝夜一分하는 니 地球一回轉間이
곳. 一日二十四時間이 오이거슬 地球의 私
轉이라 일으는 이다.

地球는 非但一處에서 서 回轉할 뿐 아니라
또 太陽의 周圍를 도라 다니는 이는 地球의
公轉이라 일으는 이다.

公轉은 一年에 一回式이니 春夏秋冬이 이
를 因하야 變하야 交生하는 지라 그 仔細를
理致는 後日에 또 說明할 터이 오이다

第二十五課 四節이라

一年을 十二로 分하니 一月 二月 三月 四月
五月 六月 七月 八月 九月 十月 十一月 十二
月이 오다시 此十二箇月을 春과 夏와 秋와

冬의 四時로 分할야. 이것을 四節이라 稱호
 는. 이 다. 樂호. 曰. 民于 四節고. 曰. 曰. 曰. 曰.
 四節의 景色은 다. 一. 一. 一. 一.
 樣이 아 니라. 春은 뜻
 뜻하야 뜻도 희고. 식
 도 울며. 夏는 더우고.
 草木이 繁茂하며. 秋
 는 서늘하고. 穀食이



동국사림집

卷二

結實함의 冬은 처음고 눈이 오며 물이 成冰
함이다.

第二十六課

一年의 月日이

라

新年에는 人人이다 業을 쉬고 新元을 致賀
하고 謙樂하며 男子는 鳶도 날리며 女子는
별도 뛰노니 故로 兒孩들은 놀기를 조

와 할야다. 一月이 오기를 苦待 할다 할느니라.

汝等은 一月부터 翌年 一月까지 幾何日數
가 잇슬가 아느뇨. 一年의 日數는 三百六十
五日이오. 또 一箇月의 日數는 三十一日이
되느셔도 잇고. 三十日이 되느셔도 잇스나
다만 二月만 二十八日이라. 그러나 그거슨
例事로 온히 의 日數 거니와. 四年마다 一番

式。閏年 이 을 터 이 니。閏年 에 는。一 年 의 日 數
1. 三 百 六 十 六 日 이 니。二 月 의 日 數 가 二 十
九 日 이 되 니 니 라。

左 에 各 月 의 日 數 를 가 지 고 지 은 歌 曲 을 記
하 니 니。汝 等 은 此 를 暗 記 하 라。

四 六 九 十 一 의 一 日 水 火 土 金 木 日 星

의 달 은 三 十 一 日 이 으

其 餘 月 은 一 體 로

三十日이 되느니라.

그러나 二月의 日數는

例事二十八日이나

閏年에는 一日을

더 할야 二十九日이라

第二十七課 人の一生이라

사람의 一生을 四節에 譬컨디 幼稚할 때는

봄이오 長成할 썩는 여름이라 조금 衰할 썩
는 가을이오 老할 썩는 겨울이라

此故로 봄과 여름스이에 工夫 할야 才操의
種子를 播植지 아니 할얏다가 가을과 겨울
이 되야 才操가 不足 할면 疎忽하게 世上을 지
낼수 업는 이다.

一 日의 計는 晨에 在하고

一 年의 計는 春에 在하고

一生의計는幼時에在함으로

第二十八課 正성이라

남을속이지말고숨이지말며

무슨정성할길을직혀라

마음을便安하게가지고잇스라하면

정성할길을직혀라

歲月을즐기게지너라하면

정성할 길을 직혀라

오날이 노니 일이 노니 變함이 없게

정성할 길을 직혀라

무슨 소로는 일을 맛나지라도

정성할 길을 직혀라

暫時도 이 말을 잊지 말고

정성할 길을 직혀라

一坐一揖一立一跪一坐一立

第二十九課 獸의王이라

이그림은獅子一란짐성이라
獅子는許多의百獸中에
가장強하니짐성의王이
라稱하느이다
此獸는美妙할갈기가잇
고또쉴족할발톱과날닌
어금니를具備하야밤이



되면나와서他獸를尋捕하야卽時먹노이
다그힘이또할甚強하야牛馬一라도그등
을할번치면그새가粉碎되며또이갓치큰
짐성이로되소으러가기를피가지물어가
뜻하노이다

그우는소리는眞實노悽愴하고또그소리
가山이울나노이他獸들은그소리만들어
도戰慄하야恐怖하이다하노이다

第三十課 養生이라

사람은 身體가 康健하니 마치 多幸한 일이
업는 이다. 몸이 康健함은 一生을 즐기
게 지니려니와 多病함은 恆常한 房中
에 閉蟄해야 生業도 못하고 一世를 不幸히
歲月을 지니는 이다. 論曰 養生法을
스름이 初生時에 大概 다 無病하나 養生法

을 행치 아니함으로 비여러 병이 나는 것지
라 그러나 幼少할 때에 能히 養生法을 행하
야 몸을 康健케 할야 長成할 後에 덕덕히 제
職業을 堪當함이 第一大關事이 오이다
養生法이란 것은 身體의 運動을 適當케 하
고 飲食하기를 適中하게 하며 居處와 衣服
을 清潔히 하는 것지 오이다

第三十一課

順明의 鳩라

春詰 이란 兒孩는 十里를 隔하야 順明이라
하는 四寸兄이 잇스니 順明은 鳩一首를 기
른 지 오러 더라

一日은 順明이 그 비 들기 를 가지 고 春詰의
집에 왓는 지라 春詰이 그 비 들기 를 貴히 너
져 撫摩하 면서 順明더러 問曰 이 비 들기 外
貌도 조커 나와 쓰 무슴 才操 잇는 잇가 順明

이答曰이식는性品이温和하야스름의계

잘길쓰리며또저잇

는집을詳細히아는

故로아보리멀니와

서放送하야도집을

잊지아니하고잘차

저가느니라



春詰이다시問曰그러면此鳩를放하야도

宅으로 갈 터이 온 잇가 順明이 答曰 집에 가
기 논 勿論하고 또 能히 書札을 傳送하느니
라 春詰이 그 말을 듯고 疑訝하얏더니
順明이 얏은 조희에 極細字로 片紙를 써서
비들기 목에 띠여 放送하느니 그 비들기 살과
긋치 쌀리 나라가 더니 不過半時에 順明의
집으로 도라 갔더라

近時에 와서 文明諸國에서 는 軍事上의 通

信할는 새는 비 들기를 使喚할다 할는 말이
잇습는 이다

第三十二課 船이라

船은江海에 띄여 스름도 티이며 物貨를
輸運케 할는 것시 우이다
船은木으로 製造하며 鐵노도 린드는 것
시 잇는 이다

木으로 만든
 것. 스네부터.
 我國에도 있
 서 스나鐵노
 製造할 것은.
 近時에야. 行
 用할 음. 노이
 다. 船의 種類



는 津船과 帆船과 火輪船이 잇스니 津船은 長
竿竹이 나 或櫓으로 저어가게 하며 帆船은
돛대를 세워 돛을 달고 風力을 썬라 進케 하
며 火輪船은 蒸氣力으로 進케 하는 것이오
이다.
此外에도 軍艦도 잇스니 軍艦은 蒸氣力으
로 進케 하는 것이니 大砲를 備寘하야 바다
우헤서 싸움하는 데에 쓰나이다.

第三十三課

武器라

武器란 것은 銃과 大砲와 軍刀等이니 다 戰
時에 用하는 것시라

넛적 兵 呼에는 弓 矢와 鎗 劍等을 用하얏스
나 至今은 이를 만히 쓰지 아니하느이다
이 그림의 右方에 示하는 것은 至今士官이
나 帽을 쓰며 軍服을 着하여 洋靴을 신으며

軍刀를 차는 이다.
 또 그 左方에 佩하는 거
 슌 昔時 將帥의 貌樣이
 나 甲冑를 着하여 臂甲
 과 膝甲을 이고 佩劍하
 며 弓 矢를 帶하얏는 이
 다.



第三十四課 軍士라

軍士란 것은 나라를 지키고 또 싸움하는 사람이니 陸軍에 從事하는 者와 海軍에 從事하는 者가 있다.

陸軍이란 것은 陸戰하는 者를 稱함이니 此 中에 銃을 메이 나 도 잇고 馬를 타 나 나 도 잇스며 大砲를 放하 나 나 도 잇고 또 砲臺를 築으며 橋梁을 築나 나 도 잇나 이다.

海軍이란 것은 海戰하는 것을 稱함이니

此에 從事하는 者는 軍

艦의 進退를 掌管하는

나도 있고 大砲를 發放

하는 나도 있는 이다

此等 軍士는 一朝에 國

家에 戰爭이 있는 時는

命을 不惜하여 敵兵과



빛호며國과君을爲하야忠誠을盡하느着

나.가장나라를爲하야光色이잇는職務

오이다.

...

...

...

...

...

新尋常小學卷三終 定價十六錢

學部編輯局開刊書籍定價表

萬國地誌 二十四錢
萬國略史上下 四十錢

朝鮮歷代史略漢文三冊 五十錢
朝鮮歷史三冊 四十錢

國民小學讀本 二十錢
朝鮮略史 二十錢

朝鮮地誌 二十錢
小學讀本 十錢

編蒙彙編 八錢
夙惠記略 十四錢

輿載撮要 四十錢
地輿略論 八錢

東輿地圖 八錢
近易辨術上下 八錢

簡易四則算術
士民必知漢文
西禮須知

四十錢
三十二錢
十二錢

本局發售諸冊非要利益務圖廣布茲於原
定價中又減幾鈔望僉君子諒焉



複本



東坡先生詩集卷三
蘇軾詩集卷三

蘇軾詩集卷三
蘇軾詩集卷三

十二
卷二

